



헝가리

I. 일반개황

면적	9.3만 Km ²	G D P	834억 달러(2003년)
인구	10.1백만 명(2003년)	1 인 당 GDP	8,295달러(2003년)
정치체제	내각 책임제	통화단위	Forint
대외정책	유럽통화동맹(EMU) 가입(2010년)	환율(달러당)	224.31(2003년)

- 동구권에선 가장 빠른 1980년대 후반부터 체제전환을 시작하여 EU, OECD, 여타 국제기구들로부터 선도적 체제전환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OECD(1990), NATO (1999)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
- 동국은 안정된 정치 및 경제환경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수출경쟁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사회불안 요인이 별로 없으며, 양호한 국제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2003년도 2/4분기 성장률이 6년만의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것을 비롯 연간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3.5%보다 낮은 3.24%에 머물러 전년 대비 0.8% 포인트 하락하였음. 이는 큰 폭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제조업부문의 설비 투자가 부진하였고, 재정적자 관리를 위한 긴축기조로 내수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함.

- 그러나 2004년 들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문가들이 당초 예상한 3.5%를 훨씬 넘는 4.2%를 시현하였고, 기업의 투자도 5년만에 최고 수준인 1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4분기 이후에도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04년에는 정부 목표 3.6%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e	2004 ^f
경 제 성 장 률	5.2	3.8	3.3	3.2	3.6
재 정 수 지 / G D P	-3.4	-3.0	-9.2	-5.9	-5.3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9.8	9.2	5.3	4.6	6.7

자료: EIU, *Country Report*.

- 물가: 2003년 5월 중 인플레이션이 지난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3.6%를 기록하는 등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6%에 그쳐 체제전환 이래 처음으로 5% 이내를 기록하였음.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축 및 고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2003년 정부의 경제운용 성적중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 부문이며, 올해의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는 전년보다 다소 높은 6.7%로 설정하고 있어 목표치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정부는 금년도 정부부문의 실질소득 증가 상한선을 1%, 민간부문은 8% 이내로 정하고 있어 2002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10%를 넘었던 것을 고려할 때 내수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움. 중앙은행이 내수진작을 위해 금년 들어 3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긴 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아 2004년 역시 수출이 내수를 커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짐.
- 재정수지: EIU 추정에 의하면 2003년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연초 목표치 4.5%를 훨씬 상회하는 5.9%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02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추진의 후유증과 특히 10% 정도의 포린트화 평가절하가 재정적자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2003년 재정적자 방어에 실패한 정부는 2004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3.8%로 신중하게 설정하였으나, 1/4분기 재정적자가 예상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최근 4.6%로 목표를 다시 수정하였음.

2. 경제구조

- 서비스업이 6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33.8%), 농수산업(4.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 비중 다시 상승: 헝가리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동구권에서는 가장 빠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음. 체제전환이 진행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1988년 GDP의 약 42%에서 1996년 32%로 낮아졌으나 EU 기업들의 부품생산 및 조립생산 기지 역할에 특화하는 산업전략 채택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또한 서비스 분야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2000년에는 GDP의 62%, 전체고용의 60%를 차지하여 동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3. 경제정책

- 점진적 개혁정책 추진: 헝가리는 1968년 소위 신경제 메카니즘(NEM)을 도입하는 등 구체제 시절부터 점진적 경제변혁을 시도하여 왔으며, 1989년 체제전환 이후에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포린트화의 태환성 부여, 인플레이션 억제 등 점진적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중·동구 국가중 가장 모범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룬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2010년 유로존 가입 목표: 올해 초 정부는 2008년까지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2.7%, 인플레이션 3%, 구매력기준 1인당 GDP를 기존 15개 EU회원국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 2010년 유럽통화동맹(EMU)에 가입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임.

4. 대외거래 동향

-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 전망: 동국은 일찍부터 적극적인 대외개방에 나선 결과 교역규모가 GDP의 130%에 이르고 있으나, 반제품 가공을 통한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부자재 수입에 따른 상품수지의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와 투자소득수지부문의 개선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2004년 6.8%, 2005년에는 5.6%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e	2004f
경 상 수 지	-2,900	-1,754	-2,644	-7,346	-6,900
경 상 수 지 / G D P	-6.2	-3.4	-4.1	-8.8	-6.8
상 품 수 지	-2,913	-2,237	-2,119	-3,364	-3,400
수 출	28,762	31,081	34,792	43,208	53,200
수 입	31,675	33,318	36,911	46,572	56,600
외 환 보 유 고	10,915	10,302	9,721	12,015	..
총 외 채 잔 액	29,520	30,305	34,958	42,358	53,300
총 외 채 잔 액 / G N P	65.4	60.2	54.4	50.8	..
D. S. R.	22.1	34.4	33.9	15.6	..

자료: EIU.

- FDI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내수경기 또한 부진하여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던 FDI 유입이 2004년 들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이는 동국의 실물경기가 호전되고 있고 그동안 투명성 결여로 투자자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투자유인책(Smart Hungary Plan)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임.
- 외채는 증가세: 2003년 말 기준 총 외채잔액은 약 424억 달러로 2002년 대비 74억 달러가 증가하였음. 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외화차입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고금리정책 견지로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또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외채증가에도 불구하고 GNI 대비 총외채잔액의 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외채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유럽통화동맹(EMU) 가입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FDI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요소임. 2003년 DSR은 수출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2002년보다 대폭 축소된 15.6%로 추정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체제 전환 이후 정치적 안정 유지

- 1989년 체제전환 이후 동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적 절차가 유지되고 중·동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여·야의 격렬한 정치적 대립이 있기도 했으나 정당간 이합집산도 비교적 적었으며, 모든 정부가 중도하차 없이 임기를 마쳤음.
- 2002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청년민주연합(Fidesz-HCP)이 연임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사회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음. 그러나 자유민주연합(AFD)과 연정을 구성한 사회당 정부는 386석의 의석중 51%인 198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정국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여당 지지율 하락: 2003년 하반기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사회당의 지지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대 야당인 Fidesz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음. 이는 집권여당의 잇따른 정책실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04년 들어서도 연초부터 공공요금 및 VAT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증가, 주택대출 축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사회당의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큼.
- EU 가입은 동국 정치에 긍정적 영향 기대: 체제전환 이후 매 4년마다 집권당이 바뀌는 와중에서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정쟁이 계속되어 온 동국 정치가 서구 정치의 타협에 이르는 기술을 습득할 계기가 되는 동시에 사회 제반 분야가 보다 투명해져 그만큼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이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EU 가입은 동국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사회적으로 안정

- 경제발전과 함께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간 갈등 요인은 있으나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은 없음.

3. 양호한 국제관계

- 유럽 일원으로서의 복귀를 국가 최대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NATO, EU 등 유럽 대서양 통합기구 가입, 인접국들과의 우호친선관계 유지, 인접국 거주 헝가리계 소

수민족 권익보호가 대외정책의 3대 기조임.

- 1955년 UN 가입, 1973년 WTO 설립에 참여, 1982년 IMF와 World Bank 가입, 1988년 유럽공동체(EC)와 무역 및 상호협력협정체결, 1991년 EBRD 설립에 참여, 1996년 OECD 가입, 1997년 IEA 가입, 1999년 NATO 가입, 2004년 EU 가입 등 국제관계 유지에도 적극적임.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국제신인도 및 ECA 지원 태도

- Moody's는 2000년 11월 동국의 장기채무등급을 A3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2002년 11월 다시 A1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S&P는 동국의 장기채무등급을 2000년 2월 BBB+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12월 다시 A-로 상향조정하였음.
- 주요 ECA들은 헝가리에 대해 별다른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음.

2.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I.C.R.G : 39/140 (2003. 9.) → 43/140 (2004. 5.)
- Euromoney : 35/185 (2003. 9.) → 36/185 (2004. 3.)
- I.I : 31/172 (2003. 9.) → 37/172 (2004. 3.)
- OECD : 2등급 (2003. 1.) → 2등급 (2004. 1.)

3. 외채 상환 태도

- 채무연체나 리스케줄링 사례 없음.
- 동국의 외채규모는 GNP의 50%대로 다소 과중한 편이나 양호한 국가신인도를 바탕으로 한 외화차입능력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V. 종합의견

- 2004년 1/4분기 경제실적이 수출과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기대치보다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실물경기가 지난 2년간의 침체를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집권 여당인 사회당의 지지도가 2003년 하반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최근 EU의 회 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이 47%를 획득, 41%를 얻은 여당에 승리함으로써 여당의 정국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 EU 가입에서도 나타났듯이 유로존 가입 등 유럽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거시적 틀 안에서는 여야간의 갈등은 크지 않음.

【김 판 수】